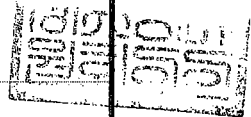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김사영	일본명	
	한자	金士永	이명	謙庵
출생연월일	미상		생일	미상
	미상			
주요경력	<b>1904년 이전</b>			
	<b>1904년 ~ 1945년</b>			
	1904.9.29	일진회 평의원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一, 14쪽)		
	1904.11.3	일진회 평안남북도 조사위원 (같은 자료, 卷之一, 28쪽)		
	1905.1.23	일진회 경상남도 사찰위원 (같은 자료, 卷之二, 13쪽)		
	1907.3.2	일진회 평안남도지부회장 (같은 자료, 卷之四, 21쪽)		
	1907.3.13~1907.10.17	일진회 평안북도지부회장 (같은 자료, 卷之四, 24, 71쪽; 卷之五, 33쪽)		
	1907.10.21	일진회 총무국 간사 (같은 자료, 卷之五, 37쪽)		
	1908.12.21~1910.9.12	일진회 총무원 (같은 자료, 卷之六, 46쪽; 일한합방비사 하권, 726쪽)		
	1913.5.12	시천교 觀道師 (至氣今至, 제2호 1913년 7월, 52쪽)		
1916.1	시천교 宗務지부 宗務長 (至氣今至, 제32호 1916년 2월, 38쪽)			
1935.4.5	시천교 大道師 (매일신보, 1935년 4월 9일 5면)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  
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와 관련하여

1)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문명사, 1911, 41~42쪽.

“(1909년 12월 3일) 하오 7시 30분에 본부 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이용구  
가 설명하기를 현금 國과 民의 위태로운 형세가 시일이 절박한즉 부득불 우리 황  
실을 존영케 하고 우리 인민을 永厚福利케 하며 위로 정부로부터 아래로 사회에  
이르기까지 더욱 발전하기로 목적하여 만세무궁의 기초를 확정하고 政合邦을 성립  
케 할 일을 우리 황상폐하께와 대일본 천황폐하의 天聽의 上徹하여 期圖 실행하자  
하매 회중이 일치가결하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53-56쪽.

「전국동포에게 포고한 성명서」

“(중략)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腦子에 충만한 조국정신을 분발하고 큰 소리를 질  
러 방금 일본 여론의 주창하는 근본적 해결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물결을 막고 파  
도를 잠자게 하고 우리 대황제 폐하와 대일본 천황폐하의 天聽을 꿰는 一團精誠  
으로 哀訴하여 우리 황실의 만세 존송하는 기초를 공고히 하며, 우리 민족의 일등  
대우하는 복리를 향유하여 정부와 사회를 더욱 발전하기로 주창하여 일대 정치기  
관을 성립할지면 우리 한국의 보호열등에 있는 수치를 해탈하고 동등정치의 권리  
를 획득하는 법률상 政合邦이라 하는 일문제이다. (중략)

음희 3년(1909) 12월 4일

일진회장 이용구

동 회원 백 만”

▶ 『황성신문』, 1909년 12월 5일 2면, 「一進議決」.

“再昨夜에 일진회 본부에서 임시대회를 열고 在京 회원 약 250명과 지방으로 上京한 회원 80여명 합계 330여명의 회원이 합동하여 한·일 양국에 관계된 서류를 대황제폐하게 봉정하고 통감부에 송치할 次로 起草하기를 결의한 후 폐회하였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5일 2면, 「합병한다네」.

“일진회에서는 재작일 밤에 회를 크게 하고 서울회원 이백오십명과 지방회원 칠십여명이 출석하여 한국과 일본을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작일에 대황제폐하게 상주문을 봉정하고 증미통감에게 건의서를 보내었다더라.”

▶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원서방, 1966, 527쪽.

“(중략) 그런데 이날 밤 총회에는, 총무원 및 지방의 평의원을 합하여 3백여 명이 출석하였다(이전부터 경성에 소집된 자 80여명). 그리하여 대체로 贊否를 물었더니, 반대자는 겨우 2명뿐이었다.”

▶ 『통감부문서』 10권, 24 통감상경증왕복서류, 「(21)菊池忠三郎에 관한 보고 이첩, 菊池忠三郎에 관한 건(憲機 제471호 사본)」.

“[부속서] 본일 桂후작으로부터 拙者에게 다음과 같은 內訓이 있었다.

一. 일진회 및 기타 합방의건서는 其筋을 受理하고 합방반대의건서는 모두 각하할 것을 了解해야 함. (중략)

三. 일진회가 多年 親日的 操志의 苦節을 守하여 온건 통일한 행동을 취하고 양국을 위해 盡悴하여 온 성의는 능히 了得하고 있다. (중략)

명치 43년(1910) 2월 2일

杉山茂丸”

## 2) 합방청원운동 전후 김사영의 지위와 활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六, 45~46쪽.

“(1908년 12월 21일) 하오 3시에 총무원회를 열고 (중략) 선거한 임원씨명이 아래와 같다.

회장 이용구, 부회장 홍공섭, 평의원장 김택현, 총무원 유학주 원세기 윤정식 한

교연 홍윤조 최영년은 의례 仍任하고 김규창 김사영은 신임하고 (후략)”

▶ 후릉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726쪽.

“일진회해산비 분배표

(중략) 일금 육백원(各人宛) 총무원

한교연 홍윤조 한남규 김사영 (후략)”

▶ 『日韓合邦記念塔建設ニ就テ』, 1934, 15~17쪽,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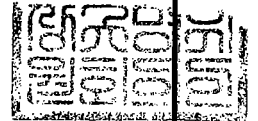
「日韓合邦記念塔記」

“(전략) 합방의 주창자 일진회 회장 이용구는 속히 일한합방을 성취하여 부하 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고 만주로 이주하고, 그곳에 근거를 만들어 日滿聯邦을 실현하여 이를 아세아 전역에 미칠 것을 계획한 것으로서 이 일 모두를 송병준 및 우리들[후릉회-작성자]과 협의하였다. 한국의 여론을 지도하거나 彼我[일본과 한국-작성자] 在朝의 諸公을 움직이고 혹은 청원서를 제출하여 백방으로 고심하여 드디어 1910년 8월 29일의 조서를 맞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이에 일한합방기념탑을 건설하여 영구히 명치천황의 유업을 찬미하여 받들고 아울러 이용구·송병준 두 사람을 시작으로 당시 합방에 공헌한 朝野 同志의 이름을 새겨 탑 속의 석실에 담으로써 이를 영원히 전한다. (중략)

「일한합방기념탑 내 석실에 봉납된 공로자 방명」

일진회 간부

총무원 김사영 (후략)”



#### 과 명

1. 김사영은 일진회 평의원 및 총무원으로서, 일진회의 합방청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김사영은 일진회 평의원, 평안남북도 지부회장을 거쳐 1908년 12월 21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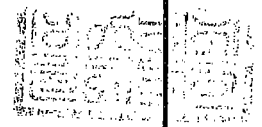
터 일진회 총무원으로 활동하였다.

일진회가 1909년 12월 3일 임시총회에서 합방을 청원하기로 의결하고, 12월 4일 일진회 명의의 상소문과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김사영은 일진회 총무원이었다. 이후 1910년 9월 12일 일진회가 해산될 당시까지 총무원직을 수행하고 일본으로부터 해산비 일금 6백원을 분배받았다. 해산비 6백원은 회장, 부회장, 평의장, 간사에 이어 5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또한 김사영은 일진회 총무원으로서 한일합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당시 한일합방의 주도세력이었던 흑룡회가 합방에 공헌한 일본 정객 및 조선인을 기념하기 위해 1934년 건립한 ‘일한합방기념탑’에도 기록되었다.

일진회의 핵심 간부로서 일본에 한국의 합병을 청원한 김사영의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사영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